

특집 : 한방생약자원의 식품·생명산업적 이용

한의학 이론을 응용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

A Plan of Practical Use of Oriental Medicinal Products Adapting Principles of Oriental Medicine

김 광 중 (Kwong Joong Kim)

경산대학교 한의학과

서 론

현대의 사회적 환경에 접하고 있는 현대인은 서양의학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로 전염병이나 급성병의 관리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현대의 사회적 환경에 따른 부작용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서양에서 건강증진사업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건강증진사업이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한의학을 비롯한 자연요법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활용 빈도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들어 민간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전통건강요법이 활발하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산업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권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에 따라 한방자원으로 설정하여 의료와 보건을 이원화시켜 관리해 왔다. 그런데 의료적인 면은 의료이원화 제도에 따라 어느 정도 자리잡았으나 그 보건의적인 면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방자원의 특성상 의료와 보건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대 보건구도에서 벗어나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보건의적인 면의 한방자원은 국가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적 필요에 따라 민간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무면허의료인, 체육인, 미용인, 서양과학자 등에 의해 대체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무질서하고 무비판적인 이론속에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앞으로의 한방자원의 바람직한 운용이 이원화된 보건구도 상태의 우리나라에 맞는 선진보건모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한방자원의 정의 및 설정,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 한방자원이 가지는 의미, 한방자원의 운용기틀 및 한방자원의 활용형태를 바탕으로 한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 현재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상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

이론을 응용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한방자원의 정의 및 설정

한방자원은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을 공유하면서 건강 관리에 사용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한다. 한의학의 이론적 배경은 질병관리보다는 신체의 자생력을 극대화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 자생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신체가 처하고 있는 자연상황과 하나가 되게 호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일반적으로 한방 자원이라면 자연물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자연물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을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맞추어 적절하게 사용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의술(醫術)에서는 한약, 침구 등을 사용하고 있고 선술(仙術)에서는 특수한 음식물과 선약(仙藥)의 복용, 벽곡(辟穀), 호흡법(食氣), 체조법(導氣)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술과 선술(仙術)의 차이에 대하여 내경에서는 건강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인위적인 형태에 따라 맞추어야 하는 것과 자연적인 형태에 따라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과 비슷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대두되는 것이 자연요법이다. 자연요법이란 자연치료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질병을 질병만으로 보지 않고 그 질병이 가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외부인 사회 환경적 면과 내부의 면역성 저항력을 검토, 관찰하는 접근 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임상 영양요법, 물리치료법, 교정요법, 동종요법, 아로마(향기요법), 색깔요법, 인도의학(야유르베타), 음악요법, 과일요법, 야채요법, 단식요법, 차요법, 명상요법, 꽃치료법, 원예요법, 마사지, 지압, 심령 치료법, 최면요법 등이 있다.

현재의 이러한 자연요법은 대상물인 자연물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인체의 자생력을 극대화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한의학에 반해 서양보건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의 자생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데 의미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따라 한방자원과 자연요법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연물과는 비록 대상은 같으나 사용목표가 달라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

지난 수세기 동안 동양학은 막강한 물질적 생산성으로 무장한 서양학의 권력에 눌려 그 가치를 매도당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였다. 그러나 요즘들어 서양학 일변도의 사회가 서양학 자체적으로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동양학에 대한 관심과 그 가치에 대한 재고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타의 동양학에 비해 서양학의 권력에 그 가치가 매도당함없이 서양학과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자체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며, 순수 동양학적인 사상을 비교적 완전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의학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다음과 같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모델의 조건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동양학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운용되거나 운용 가능한 것이다. 셋째,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제시한 세가지 조건을 구비한 것이 바로 한의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의학은 서양의학의 맹렬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양이론적 틀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국민속에서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질병치료의 수단으로서 현실에서 운용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학의 질병치료나 건강관리에 대한 방식은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건강관리방식에서 건강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건강관리방식으로 현재 세계 보건의료계의 추세에도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는 이러한 한의학이 가지는 특성과 위상을 가지고 현대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방자원의 운용은 서양의학의 보완적 입장에서 한의학의 질병치료와 더불어 건강관리적인 면의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여건요법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생활시설과 정신기수련 등은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서양에서 일고 있는 자연요법의 영향속에 다양한 한방건강관련사업이 잇달아 개발되면서 현재는 이러한 한방생명자원산업이 전반적으로 건강증진에 크게 공헌할 요소를 가지고 활발하게 산업화는 되고 있으나, 이것이 학문적 의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라 기대한 만큼 국민보건에 공헌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한방생명자원산업은 국민건강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능력과 아이디어를 지니고 나름대

로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며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한방의료산업, 한방의료보조산업, 한방건강음료산업, 한방건강정신운동산업, 한방건강레저산업, 한방건강생활시설산업, 한방건강종합관리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리라 생각되어 앞으로 이의 기반이 되는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한방자원이 가지는 의미

한방자원은 생활의 순환에 어울리게 하여 신체의 전체적인 흐름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음양을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신체의 음양균형을 맞추어 주게 되면, 신체 내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의 각 부분이 스스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자 질병을 스스로 퇴치할 수 있는 힘인 생명력이 강해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생명력을 키워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게 유도하는 학문이 바로 한의학이다. 이 생명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한방자원은 가장 자연스러운 몸,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서 자연발생적으로 그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방자원은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자연상태로서 음양의 조화를 찾고 그 속에서 건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소문 상고천진론에서는 ‘옛 사람들도 도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음양의 법칙에 순응하였다’라 하였다. 이것은 오랜 옛날에도 한방자원의 이치를 환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은 음양의 법칙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한방자원의 원리는 자연계의 규율에서 찾고 있어 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소문 사기조신대론에는 ‘그러므로 음양과 사계절은 만물의 시작과 끝, 생과 사의 근본이다. 이것을 역행하면 재액(災厄)이 일어나며 순응하면 질병에 걸리는 일이 없다. 이것을 이룸하여 도를 터득한다라고 한다’라 하였다. 이것은 음양과 사계절이 모든 생명의 근원임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음양 사계절의 규율에 위반된 생활을 하게 되면 재액이 일어나지만 이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면 질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다. 이것이 양생의 도를 터득하는 것이 된다. 음양의 변화와 사계절의 행을 옛사람은 자연계에 있어서의 규율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음양 사계절의 행에 순응하는 것은 자연계의 규율성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 하고 정신은 황제대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여기서 한의학에서 보는 음양의 조화가 맞는 이상적인 인간으로 진인, 지인, 성인, 현인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생활형태는 소문 상고천진론에서 기술되어 있다. 이 중 현인이 ‘우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는 자연을 본받아 해와 달을 본뜨며 천체의 행을 이해

하여 음양에 잘 따라서 사계절을 알고 장차 오랜 옛날의 도를 따라 갈아지러 하니 수명을 더할 수는 있으나 죽는 때가 있다'라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건강의 상태를 음양의 역동적 조화로 본다. 즉 우리 몸을 이루는 상태를 음양으로 나누고 이것이 고여있는 물처럼 균형만 맞추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흐르는 물처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음양의 조화를 맞출 것인가를 소문 상고천진론에서 '옛날 사람들은 양생의 도를 알아 음양을 본받고 양생의 술법에 맞추어 음식은 절도 있게 먹고 기거하는 것이 일정하여 합부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다'로 찾고 있다. 결국 양생의 도는 역동적 음양의 조화에 영향을 주는 식생활과 기거습관, 운동 그리고 정신안정에 있다. 이러한 음양의 조화를 자연환경과 같이 하는 자연적이던 신체를 이에 맞추어 나가는 인위적이던 방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방자원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한방자원의 운용기틀

한방자원의 운용기틀은 생활의 순환에 어울리게 음양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으로 인체의 균형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자연스럽게 자연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자연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소극적인 방법은 양생적 관리로 자기관리적 측면이 강해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때 대두되며 적극적 방법은 체질관리로 타인관리적 측면이 강해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었을 때 대두된다.

양생적 관리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때는 단순히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끌어내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건강관리와 질병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섭생하는 기본은 제대로 먹고, 자고, 활동하여 신체의 균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운동, 식사, 수면을 통한 섭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신체의 균형으로 자신을 정상으로 이끌려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운동은 체력의 강화보다는 신체의 균형을 드러내는 기(氣)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氣)의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움직임, 어린애들의 움직이는 모습과 같이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각종 기공체조라는 것

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균형유지를 꾀할 수 있는 기(氣)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한의학에서 운동의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게 움직이면 기운이 손상된다. 반면에 지나치게 편안히 지내는 것도 기운을 울체시키므로 좋지 않다. 이와 같이 기(氣)가 적절히 순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병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볍고 자연스럽게 몸을 풀어주는 것은 체질에 관계없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식사는 칼로리나 영양가가 아닌 신체의 음양적 균형을 조절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의 음식을 보면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양권에서 사는 우리가 동양적 가치를 갖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칼로리의 인식에 기초가 되는 육식위주보다는 우리 신체의 균형에 어울리는 음식인 오곡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법이다. 우리의 음식문화에서 주식을 차지하는 것은 오곡(五穀)을 중심으로 한 밥이며, 이에 야채와 고기가 국과 반찬의 형태로 곁들여 진다. 인간의 치아를 보더라도 곡식과 채소와 고기는 공히 적절하게 섭취되도록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어느 것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달려있다. 요즘 주목받는 소식, 채식위주의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지나친 서양의 칼로리위주, 육식위주 식생활의 문제점 때문에 그 보완적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면 역시 단순히 휴식이 아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흔히들 수면하면 단순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신체의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그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나 생활환경으로 그 분류에 또 다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즉, 어린애들은 양기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잠을 비교적 많이 자는 것이 좋고, 노인에 있어서는 양기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또한 현대인은 그 생활 특성상 정신적으로는 양적 경향이 강한 상태이고, 육체적으로는 울체되어 있는 음적 경향이 강한 상태를 나타내기 쉬우므로, 비교적 정기적인 가벼운 육체적 활동 후 안정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강법이 된다.

체질적 관리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었을 때는 단순히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이끌어내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인위적으로 신체의 전체적인 균형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방법으

로 건강관리와 질병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자연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데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기준이 되는 체질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하게 된다. 체질에 대한 인식은 여러가지이나 모두 음양에 포괄되므로 인체는 크게 음양체질로 나눌 수 있다. 음(陰)은 수렴적, 방어적, 보수적인 것의 표상이고, 양(陽)은 확산적, 공격적, 강제적인 것의 표상으로, 인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러한 양적 요소가 주도하는 경우를 양체질이라 하고, 음적 요소가 주도하는 경우를 음체질이라 한다. 이러한 음체질과 양체질에 동질의 요소가 더해지는 경우 신체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이상을 초래하기 하기도 하며, 만약 상반된 요소가 더해지면 신체는 편안해지고 정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이러한 음양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체질에 맞는 생활을 통해 가능하다.

각 체질에 맞는 생활이란 양체질은 음적인 요소를 보완할 수 있고, 음체질은 양적인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 양체질의 경우 비교적 활동력이 많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므로 음적인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운동을 하기보다는 휴식을 하는 것이 좋고, 음식은 자극성이 없고 중후한 것을, 수분은 되도록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표 1). 수면은 비교적 많이 취할수록(7~8시간) 좋다. 또한 마음은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특별히 음악을 들을 경우라면 조용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음체질은 비교적 활동력이 적고 신진대사가 활달치 못하여 양적인 요소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휴식보다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은 자극성이 있고 담백한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수분은 비교적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수면은 비교적 적게 취할수록(5~6시간) 좋다(표 1). 마음은 적극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특별히 음악을 들을 경우라면 발랄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한방자원의 활용형태

한방자원의 활용형태는 몸안의 자생력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위해 음양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적인 실천 방법에서 택한 것이다. 이는 한의학에서 건강을 이끄는 방

법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한의학에 있어서 몸의 균형이 크게 깨져 있는 경우,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경우, 몸의 균형이 별로 깨어지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져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몸의 균형이 크게 깨져 있는 경우는 질병이 생겨 의사의 인위적인 도움에 의해 자신을 관리해야 하며 의사는 체질적 관리와 더불어 양생적 관리의 단계로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몸의 균형이 중정도 깨져 있는 경우는 질병의 상태가 아닌 신체적인 큰 부담감으로 존재하여 전문지식에 따른 인위적인 도움과 더불어 자신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체질적 관리와 더불어 양생적 관리의 개별적인 수련을 통해 앞으로 생활방향을 세우게 된다. 몸의 균형이 별로 깨어지지 않은 경우는 신체적인 큰 부담감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신체적 관리를 위해 스스로 생활속에서 다스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양생적 관리로 앞으로 생활방향을 세우게 된다. 결국 한방건강관리에는 신체가 자생적인 유지능력이 활발히 가지고 있는 경우와 신체가 자생적인 유지능력이 활발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다루게 되며 신체가 자생적인 유지능력이 활발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연적인 흐름만 같이하면 되며 신체가 자생적인 유지능력이 활발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는 인위적으로 체질적 상태를 맞춰주게 된다.

따라서 한방자원의 활용형태는 몸의 균형이 크게 깨져 있는 경우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하여 침구, 한약 등을 사용하며 몸의 균형이 별로 깨어지지 않은 경우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연생활과 자연스럽게 더불어 하는 일상생활, 기호생활, 여가생활 등이 있으며,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경우 이를 생활속의 일환으로 삼는 운동방법으로 자연에 어울리게 신체를 유지케 하는 방법인 기공, 단전호흡 등과 식사방법으로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방법인 단식, 생식 등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원천적으로 자연생활과 자연스럽게 더불어 하는 처치가 기본이 되어 자연발생적인 자생력의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좋으나 주어진 환경이 이와 같지 못할 때는 인위적이거나 자생력의 효과가 드러나게 만들어내는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인위적으로 자생력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때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전자와 병행하는 것

표 1. 체질에 적합한 음식

양체질에 적합한 음식	음체질에 적합한 음식
*기름지고 달고 신 음식물 - 마요네즈, 기름, 설탕, 식초 등 *찹쌀, 콩, 팥류의 무겁고 진한 종류 *성품이 찬 나물류 - 버섯류, 해초류 등 *음적(陰的)인 약물 - 숙지황, 산약(마) 등	*매운 음식물 - 고추, 후추, 겨자, 파, 마늘 등 *울무, 밀 등의 가볍고 담백한 종류 *성품이 더운 나물류 - 쑥, 달래 등 *양적(陽的)인 약물 - 인삼, 황기 등

이 바람직한 활용형태라 할 수 있다.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은 한의학에서 건강을 이끄는 집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사에 맡겨 이루어지는 질병치료위주와 자신이 설정해야 하는 건강증진위주의 산업으로 구별된다. 이 중 건강증진위주의 산업에서는 사회가 관리해주는 산업과 자신이 인식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별된다. 결국 질병치료위주는 한약, 침, 뜸에 따른 한방건강의료산업, 의료기, 의료보조기구에 따른 한방건강의료보조산업으로, 건강증진위주는 개별적인 상태로 생활과정에 따른 식이산업, 운동산업, 여가생활산업, 생활보조산업, 생활양식산업과 종합적인 상태로 종합관리산업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따라 한방생명자원산업에 해당되는 각각의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방건강의료산업

한의학의 이론을 가지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형성된 산업이다. 이는 남의 질병을 다스리는 한방의료산업과 질병의 자기관리를 하는 한방가정요법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의료산업 - 한의원, 한약방, 침술원
- 한방가정요법산업 - 수지침, 서암뜸, 민간요법

이 한방건강의료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이 크게 나타나는 질병치료를 목표로 하기에 체질적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의료보조산업

한의학의 이론을 가지고 질병치료를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산업이다. 이는 질병을 다스리는데 직접 필요한 한방의료기산업과 질병을 다스리는데 간접 필요한 한방의료보조기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의료기산업 - 진단기기, 치료기기
- 한방의료보조기산업 - 약탕기, 침, 뜸

이 한방건강의료보조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질병치료보조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식품산업

한의학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면서 식품으로

건강증진하는 산업이다. 이는 보양을 목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한방건강보양식품산업, 질병회복 및 건강증진에 도와주는 식품을 공급하는 한방건강보조식품산업,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증진을 위한 음료가 공급되는 한방건강음료산업,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방법이나 재료를 조절하여 건강증진을 꾀하는 한방건강식생활관리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보양식품산업 - 건강원, 건강음식점
- 한방건강보조식품산업 - 알로에전문점, 죽염전문점, 달팽이전문점, 다시마전문점, 양봉원, 인삼판매점, 누에전문점
- 한방건강음료산업 - 한방인스턴트음료식품, 전통다실
- 한방건강식생활관리산업 - 단식원, 생식원, 선식원, 체질식원

이 한방건강식품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의 상태에 따라 자신이 조절하는 의미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와 체질적 관리를 함께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운동산업

한의학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면서 운동으로 건강증진케 하는 산업이다. 이는 신체의 육체적 균형 단련으로 건강증진을 꾀하는 한방건강무예산업과 신체의 정신적 균형 상태를 관리하여 건강증진을 꾀하는 한방건강정신운동관리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건강무예산업 - 18기, 태권, 수벽치기, 검도, 불교 무술, 피한뿔루, 태극권, 원화도, 정도술
- 한방건강정신운동관리산업 - 단학선원, 국선도, 천도선법, 연정원, 기천협회, 금선학회, 불교선방, 요가

이 한방건강운동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의 상태에 따라 자신이 조절하는 의미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와 체질적 관리를 함께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여가생활산업

한의학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면서 여가생활로 건강증진케 하는 산업이다. 이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레저를 활용하는 한방건강레저산업,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서비스를 활용하는 한방건강서비스산업,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강취미활동을 활용하는 한방건강취미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건강레저산업 - 휴양림, 약수터, 해수찜질장, 온

천장

- 한방건강서비스산업 - 찜질방, 한방사우나, 한증막, 안마, 지압, 마사지, 시술소
- 한방건강취미산업 - 국악, 서예, 바둑, 궁도, 다도

이 한방건강여가생활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생활보조산업

한의학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면서 생활의 보조구도로 건강증진케 하는 산업이다. 이는 건강증진을 피하는 생활시설을 개발하는 한방건강생활시설산업, 건강증진을 피하는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한방건강생활용품산업, 건강증진을 피하는 생활기구를 개발하는 한방건강생활기구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건강생활시설산업 - 기문화주택건설, 황토방주택, 온돌 황토 맥반석, 옥돌 침대
- 한방건강생활용품산업 - 한방화장품, 한방치약, 한방비누, 한방쑀패드
- 한방건강생활기구산업 - 건강지압기, 건강반지, 건강팔찌

이 외에도 한방건강생활양식산업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식이요법이나 정선건강요법과는 달리 건강산업으로 산업화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가져 아직 건강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동호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생활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한방건강생활보조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건강관리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한방건강종합관리산업

한의학이 가지는 이론적 배경을 같이하면서 생활의 전반적인 면을 관리하여 건강증진케 하는 산업이다. 이는 식이, 운동, 생활양식, 생활 여건 등 건강증진을 피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한방건강종합교육산업, 식이, 운동, 생활양식, 생활 여건 등 건강증진을 피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련하는 한방건강종합수련산업, 레저를 통하여 식이, 운동, 생활양식, 생활 여건 등 건강증진을 피하는 내용을 접하는 한방건강종합레저산업, 자연스런 생활 과정을 통하여 식이, 운동, 생활양식, 생활여건 등 건강증진을 피하는 내용을 접하는 한방건강종합생활산업, 식이, 운동, 생활양식, 생활여건 등 건강증진을 피하는 내용을 종합적

으로 이용하여 질병회복을 피하는 한방건강종합요양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방건강종합교육산업 - 한방건강교육원
- 한방건강종합수련산업 - 한방건강수련원
- 한방건강종합레저산업 - 한방건강레저원
- 한방건강종합생활산업 - 한방건강생활원
- 한방건강종합요양산업 - 한방건강요양원

이 한방건강종합관리산업에 있어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은 음양평형의 상태에 따라 자신이 조절하는 의미를 목표로 하기에 양생적 관리와 체질적 관리를 함께 신경써야 한다.

현재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상 문제점 및 해결방법

한방자원의 특징은 상황적 의미에 맞추어 효과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방자원은 주관성의 개념을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다. 이에 한방자원의 운용을 사회적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방자원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상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한의학의 특성이 충분히 용화되고, 이를 사회에 구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산업화를 위해 집단관리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야 사회에 제대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한방자원의 활용은 산업화를 위한 일반성(대중적 이해의 유도)과 한방건강증진의 전문성(한의학적 특성의 발휘)의 적절한 안배에 미숙한 상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다.

1. 일반성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이 제대로 배려되지 못한 사업형태
 - (1) 산업화를 너무 의식하여 분야를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한방건강증진의 극대화를 위한 특성발휘가 미진한 상태
 - (2) 사회적 정착이 선행되어 한방건강증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결여된 상태
2. 전문성을 위주로 하고 일반성이 제대로 배려되지 못한 사업형태
 - (1) 전문성에 따라 개인적 관리위주로 되어 집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2) 전문성속에 자기중심적 관리가 되어 사회적 역할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이상을 볼 때 현재의 한방자원에 대한 문제점은 한방관

런자료의 내용상 문제보다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담고 있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위한 일반성(대중적 이해의 유도)과 한방건강증진의 전문성(한의학 적 특성의 발휘)의 적절한 연계가 실제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양적 특성에 기준하여 서양적 특성을 융화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결국 동양학 자체의 특성이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이 객관적 요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동양적 틀을 가지고 동양학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기본흐름(실학적 사항)을 같이 하면서 서양학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형태(신과학화적 사항)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작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특성을 지니면서 일반화가 가능한 인식패턴을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패턴에 어울리는 한의학적 내용, 서양적 내용을 이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어울리게 실제화시킬 수 있는 현장적용 구도의 개발에 따라 동양적 기술에 어울릴 수 있는 서양적 관리구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올바른 사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는 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로 국민의 바람직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학계는 한방자원의 올바른 이해를 기초로 해 이용에 대한 학문적 계도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기존 보건구도와 연계성의 모색, 특히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방생명자원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하며 기업은 한방자원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사회적응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산업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정부에서는 한방자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기존 제도권밖의 것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① 한양방을 연계한 우리나라에 맞는 보건모형을 만들

어 자연스러운 한방자원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 국가복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한의학 쪽의 참여 일환으로 한방생명자원산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의 건강증진사업에서 중요시하는 대상 계층과 같기 때문에 건강증진사업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건강증진에 한방건강관련사업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 ② 한방생명자원산업들이 보건관리의 의미가 아닌 여러 분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들을 함께 연계시켜 제도권내에서 운영할 책임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한방생명자원산업은 대부분이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중 식이분야는 위생과, 운동분야는 문체과, 생활일반분야는 위생과, 문체과에 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대부분이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의 분야가 연계성을 가지고 각각의 보건역할을 나타내는 상태이므로 보건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들의 역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를 연계시켜 조절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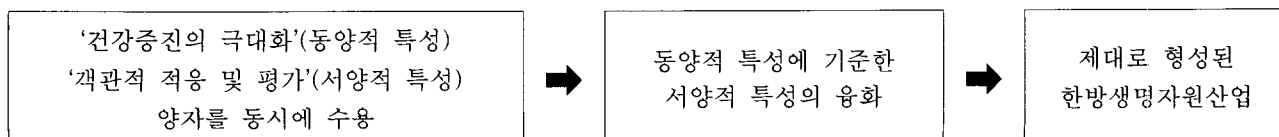
학계에서는 한방자원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이것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 ① 정부가 한방자원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한방자원의 학문적 위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학계는 정부에게 한방자원과 자연요법의 차별성 및 한방생명자원산업과 건강증진사업의 연계성을 제시하여 제도권내에서의 한방생명자원산업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 ② 기업이 한방생명자원산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방생명자원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학계에서는 연구소를 만들어 이들에게 실천 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국민이 한방자원을 올바르게 이용하게 한방자원의 학문적 내용에 대한 사회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방

표 2. 한방생명자원산업 육성 방안



자원의 올바른 사용으로 한방생명자원산업에 대해 국민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한방생명자원산업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설정해 줌으로서 국민에게 한방생명자원산업의 위상을 높혀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에 따라 한의학에 연관된 부분을 사회생활 속에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

기업에서는 한방생명자원산업을 일시적 분위기에 맞추기보다는 학문이 가지는 특성화의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① 한방생명자원산업이 현재의 여건상 민간의 사업체에 의해 관리되는 만큼 기업이 단순히 시행자가 아닌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한방생명자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 사업에 한양방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나 결국 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본질적인 노력은 보건 정책기관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재정적 여건이 확보될 때까지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경제원리에 따른 민간경제의 산업화방향속에서 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② 한방생명자원산업의 학문적 특성에 잘 어울릴 수 있게 기업은 사업을 일반화 대형화시키는 것보다 전문화 소량화시켜 나가야 한다. 근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업의 형태를 선정하는 경향이 많으나, 실제적인 효과측면에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방생명자원산업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두되는 산업 형태가 아니라 동서양 학문의 차이를 극복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산업으로 현 사회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특정 분야를 다스리는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계층을 공략하는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앞으로의 한방자원의 바람직한 운용이 이원화된 보건 구도 상태의 우리나라에 맞는 선진보건모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한방자원의 정의 및 설정,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 한방자원이 가지는 의미, 한방자원의 운용기틀 및 한방자원의 활용형태를 바탕으로 한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 현재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상 문제점과 해결점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 이론을 응용한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을 설정해 보면 다음

과 같다.

한방자원의 정의 및 설정

한방자원은 한의학에서 건강관리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하며 한방자원과 생약, 자연요법상의 재료와는 재료상의 차이가 아니라 운용방법상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설정된다.

한방자원의 사회적 가치

21세기에 한의학과 더불어 한방자원은 국민건강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능력과 아이디어를 지니고 나름대로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는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경쟁력있는 새로운 산업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한방자원이 가지는 의미

한방자원은 건강관리를 위해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함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몸,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 가장 자연스러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어진 상황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여 이와 같이 총체적인 흐름을 드러내는 방법인 음양적으로 그 가치를 설정받고 있는 것이다.

한방자원의 운용기틀

한방자원의 운용기틀은 생활의 순환에 어울리게 음양을 어떻게 맞추냐는 것으로 인체의 균형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자연스럽게 자연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이며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자연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소극적인 방법은 양생적 관리로 자기관리적 측면이 강해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지 않을 때 대두되며 적극적 방법은 체질관리로 타인관리적 측면이 강해 신체적 균형이 크게 잘못되었을 때 대두된다.

한방자원의 활용형태

한방자원의 활용형태는 몸의 균형이 크게 깨져 있는 경우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하여 침구, 한약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몸의 균형이 별로 깨어지지 않은 경우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연생활과 자연스럽게 더불어 하는 일상생활, 기호생활, 여가생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몸의 균형이 어느 정도 깨져 있는 경우 이를 생활속의 일환으로 삼는 운동방법으로 자연에 어울리게 신체를 유지케 하는 방법인 기공, 단전호흡 등과 식사방법으로 자연에 적응

할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방법인 단식, 생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방안은 한의학에서 건강을 이끄는 집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사에 맡겨 이루어지는 질병치료위주와 자신이 설정해야 하는 건강증진위주의 산업으로 구별된다. 결국 질병치료 위주 산업은 체질적 관리가, 건강증진위주 산업은 양생적 관리가 한방자원의 활용방안에 주안점으로 삼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용상 문제점과 해결방법

한방자원의 산업화에 대한 문제점은 자기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이에 따라 한방생명자원산업의 개발형태는 동양학 자체의 특성이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이 객관적 요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동양적 틀을 가지고 동양학적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보완하려는 기본흐름(실학적 사항)을 같이 하면서 서양학의 주관성을 드러나는 형태(신과학화적 사항)로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작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한방자원의 산업화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방자원의 산업화로 사회적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올바른 사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는 운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학계,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로 국민의 바람직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 학계는 한방자원의 올바른 방향과 이용에 대한 학문적 계도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기존 보건구도와의 연계성의 모

색, 특히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한방생명자원산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하며 기업은 한방생명자원산업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사회적응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산업화를 꾀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광중 : 생명존중과 한의학. 민족정신의 원류와 전개, 경산대학교 출판부, 대구, p.260-285 (1996)
2. 김광중 :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중문출판사 (1992)
3. 박석준 : 몸. 소나무 (1995)
4. 왕빙註 : 황제내경. 대북중의서국, 대북, p.16-18, 22-23 (1972)
5. 원광대학교 부설생명공학과 氣의학분과 : 氣의 시대 면역의 시대. 언립, 서울 (1995)
6. 유승흠 : 보건기획과 관리. 수문사, 서울, p.217-227 (1995)
7. 이기남, 이선동 : 전통한방예방의학. 성보사, 서울, p.41-43 (1995)
8. 김광중 : 한의학의 인식방법론. 동의생리학회지, 16, 199-203 (1997)
9. 김광중 : 한방건강증진관리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국한의학연구원, 서울 (1999)
10. 김광중 : 21세기 한방건강관련산업의 역할과 전망, 21세기 인류의 미래와 삶의 질향상. 경산대학교 개교17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97)
11. 김우호 : 양생도인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1987)
12. 김한중 : 21세기 한국 사회와 의료. 미래 의학, p.5 (1995)
13. 송경섭 : 한의학의 발전 과정과 사회 기여도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 대구 (1995)
14. 양봉민 : 보건 의료 어디로 가야 할까. 대한한의학회지, 14, 17-23 (1993)
15. 이남규, 윤창열 : 양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원전학회지, 8, 48-50 (1995)